



농민의 자리에서 본다

기사년(己巳年)은 기사년(幾死年), 새해는 기사회생(起死回生)의 해가 되어야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9수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더니 '89년을 넘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직접 양돈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80년대를 과거로 보내고 '90년을 맞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동서 화해 분위기 속에서 탱크를 녹여 트랙터를,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자고 한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금년 3월 이후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하여 경제 위기관리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등 불안한 속에서 '90년대를 맞게 되었다. '89년의 양돈불황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과욕 때문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왜 경기가 둔화되고 쇠고기,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돼지두수는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업계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농민들의 불만이 자동차수출업체를 위해서 왜 농민이 희생되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들은 다행히도 정부의 가격안정대책 때문에 과격한 농민대회로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을 받기 시작한 것이 대미 자동차 수출로 무역역조가 커지면서부터이다. 불과 2년전의 일이다.

이동안 우리는 쇠고기를 연간 6만여톤 수입하게 되었고, 그 덕택에 양돈산업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2년 수출하고 이제는 자동차 수출도 잘 안되어 내수판매에 치중하다 보니 서울은 물론 전국이 교통체증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몇일전 신문에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고 난 후에 수입개방을 해야 하는데, 7년이란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고 미루다 보면 양돈산업에 기사년(己巳年)은 기사년(幾死年)으로 바로 돌아오게 된다.

서 88올림픽 기간중 실험해 본 자동차 홀짝수 운영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차(車) 없이는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어 홀수차와 짝수번호의 차를 2대 가져야 한다.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출도 안되고 내수시장도 차를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한계에 왔으니 홀짝수 운행제라도 실시하면 자동차를 한대씩 더 사게돼 자동차와 연관 부품산업이 발전할텐데, 웬 잔소리냐고 하겠지만, 얼마 안가서 교통지옥은 마찬가지로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이는 우리보다 못사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활동으로 시험해 보았고, 자동차 회사만 호황을 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양돈장은 도시근교가 아닌 오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는 안된다. 양돈불황기에 자동차회사 불황을 위해서 차를 한대씩 새해에는 사주어야 될지도 모른다.

포니 몇대를 팔아서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을 사다 먹는다는 정책이 자동차도 못팔고 국내 농축산업도 어렵게 되어 경제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가 나 빠지니 주식값이 떨어져 한국은행돈으로 무제한 구매한다고 하여 주식값은 회복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농축산업 문제의 해결없이 자동차 산업의 부양을 위한 홀짝수 운행이나 증권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는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

현재 농가의 소득작목이 쌀, 돼지, 젓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오보이기를 바라지만

농진청에서는 앞으로 전축산물이 7년 이내에 수입개방될 경우 농가소득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작목으로 흑염소, 멧돼지, 꿩, 토종닭 사육을 선정하고 있는데, 대중식품이 아닌 이들 식품 수요를 얼마로 추정하고 선정하였는지 모르겠다.

보신탕용 개 사육이 빠진 것은 최근 개값이 뚱값으로 하락한 때문이겠지만, 앞으로 멧돼지, 꿩, 토종닭 값이 헐 값으로 도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양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돼지 대신에 멧돼지로 하지 말고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나라중 양돈산업으로 성공한 덴마크나 화란의 모델을 수입하고,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영세율 적용과 생산비중 가장 큰 배합사료의 구입가격을 절감하기 위한 농가의 자가배합사료제도 개방 및 이제는 국산옥수수, 국산대두박에 대한 국제가격과의 차액도 정부가 보진하여 축산업을 살려야 된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확대와 장기저리 융자는 물론, 도로·전기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면 기사년(己巳年)에 기사(幾死)지경이 된 양돈업이 새해에는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는 후에 수입개방을 해야 할 것인데, 7년이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고 미루면 양돈산업에 기사년(己巳年)은 기사년(幾死年)으로 바로 돌아오게 된다. **■**